

2023 이천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 ▶ 출 장 국 가 :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 ▶ 출 장 기 간 : 2023. 5. 13.(토) ~ 5. 22.(월)
- ▶ 출장 참가자 : 14명 (시의원 9, 직원 5)

이 천 시 의 회
【 의 회 사 무 과 】

【 목 차 】

I. 출장개요	2
II. 사전준비활동	6
III. 출장국가 개요	8
IV. 방문일자별 출장내용	12
V. 출장 후기	30

- 선진 지방의회 제도 벤치마킹을 위한 - 2023년도 이천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I 출장 개요

□ 출장 배경

- 서유럽을 대표하는 세 나라의 선진 지방의회 제도에 대한 모범사례, 다양한 정책과 문화유적 보존의 우수사례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제8대 이천시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
- 세계문화유산의 홍보와 보존 방법 등을 고찰하고, 특히 미술관, 궁전 등 건축물의 현장 견학을 통하여 유네스코 창의도시이자 문화예술 관광도시인 우리시에서 추진해야 할 방안 마련.
- 비교 분석을 통하여 향후 의원 정책 연구 개발 등에 적극 활용.

□ 출장 개요

- 기 간 : 2023. 5. 13.(토) ~ 2023. 5. 22(월) 【8박10일】
- 출장국 :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 출장자 : 14명(의원 9명, 직원 5명)

연번	소속	직위(급)	성명
1	이천시의회	의 장	김 하 식
2		부 의 장	김 재 현
3		의 회 운 영 위 원 장	박 명 서
4		자 치 행 정 위 원 장	박 노 희
5		산 업 건 설 위 원 장	송 옥 란
6		시 의 원	김 재 국
7		시 의 원	서 학 원
8		시 의 원	박 준 하
9		시 의 원	임 진 모
10		전 문 위 원	이 보 철
11		전 문 위 원	이 민 수
12		의 정 팀 장	이 재 태
13		주 무 관	윤 진 희
14		주 무 관	경 종 진

□ 출장 목적

-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지방의회 방문을 통한 선진 의정활동 비교분석
- 각 국의 지방의회 정책결정과정 및 주요정책 우수사례 비교
- 주요사업 및 현안문제에 대한 의회와 집행부간 해결 방법
- 자연경관을 활용한 친환경적인 도시관리 정책 벤치마킹
- 세계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이를 활용한 관광활성화 방안 벤치마킹

□ 주요 일정

일자	지역	출장내용	비고
제1일 5월13일 (토)	인천 로마	· 인천 출발(로마 향발) 11:50 · 로마 도착 17:50	
제2일 5월14일 (일)	로마 폼페이 나폴리 로마	· 호텔 출발 · 폼페이 이동(약 3시간 소요) ▶ 폼페이 유적 시찰 ■ 방문시간 : 5월 14일 (일) 11시 ■ 주요내용 · 화산재에 덮여진 고대도시 폼페이 유적 내부 시찰 · 세계문화유산 보존관리 방안 벤치마킹 · 나폴리 이동 ▶ 카포디몬테 미술관 및 도자기 공방 방문 ■ 방문시간 : 5월 14일 (일) 15시 ■ 주 소 : Via Miano, 2, Naples, Italy ■ 홈페이지 : http://capodim.napolibeniculturali.it/ ■ 주요내용 · 나폴리 국립미술관 카포디몬테 미술관 시찰 · 18세기 이탈리아 도자기 역사의 중심지인 도자기 공방 방문 · 도자문화예술 도시인 이천시의 접목 방향 모색 · 로마 귀환 · 석식 후 호텔 투숙	이탈리아
제3일 5월15일 (월)	로마	· 호텔 출발 ▶ 티볼리시의회 방문 ■ 방문시간 : 5월 15일 (월) 10시 ■ 주 소 : Piazza Trento e Trieste, 03014 Fiuggi FR, Italy ■ 홈페이지 : https://comune.fiuggi.fr.it/home ■ 주요내용 · 지방의회 정책결정과정 및 주요정책 우수사례 비교 · 주요 정책 및 현안 문제에 대한 의회와 집행부간 해결 방법	이탈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티칸 박물관 관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시간 : 5월 15일 (월) 14시 ■ 주 소 : Via Vaticano, 00165, Roma RM ■ 홈페이지 : https://www.museivaticani.va/content/museivaticani/en.html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톨릭의 총본산 바티칸 시국의 바티칸 박물관 내부 관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식 후 호텔 투숙 	
<p>제4일 5월16일 (화)</p>	<p>로마 피렌체 베니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텔 출발 · 피렌체로 이동(약 3시간 소요)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렌체시의회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시간 : 5월 16일 (화) 15시 30분 ■ 주 소 : Palazzo Vecchio Piazza Della Signoria - 50122 Firenze ■ 홈페이지 : https://www.comune.fi.it/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 및 의회운영 주요정책 정보 교환 · 교류 활성화 방안 논의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렌체 두오모 성당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시간 : 5월 16일 (화) 17시 ■ 주 소 : Piazza del Duomo, 50122 Firenze FI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꽃의 성모마리아 성당으로 유명한 두오모 성당 방문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니스 이동(약 3시간 이동) · 석식 후 호텔 투숙 	<p>이탈리아</p>
<p>제5일 5월17일 (수)</p>	<p>베니스 밀라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텔 출발 · 바포레토 탑승 후 베니스 본섬으로 이동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산마르코 광장 및 대성당 탐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시간 : 5월 17일 (수) 10시 ■ 주 소 : P.za San Marco, 328, 30100 Venezia VE, Italy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베네치아 문화지구 시찰 · 세계문화유산 보존관리 방안 벤치마킹 · 광장 문화 연구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니스 수상도시 관리 실태 현장 견학 · 밀라노 이동(약 3시간 이동) · 석식 후 호텔 투숙 	<p>이탈리아</p>

<p>제6일 5월18일 (목)</p>	<p>밀라노 인터라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텔 출발 · 인터라켄으로 이동(약 4시간 이동)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인터라켄 시의회 방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시간 : 5월 18일 (목) 16시 ■ 주 소 : general-Guisan-Strasse 43, 3800 interlaken, Swizerland ■ 홈페이지 : https://www.interlaken-gemeinde.ch/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 및 의회운영 주요정책 정보 교환 · 친환경 정책 벤치마킹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식 후 호텔 투숙 	<p>스위스</p>
<p>제7일 5월19일 (금)</p>	<p>인터라켄 로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텔 출발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융프라우 산 등정 및 문화시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시간 : 5월 19일 (금) 08시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적으로 운행되는 산악열차 탑승 ·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존하며 재난재해 대책에 대한 벤치마킹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잔역으로 출발(약 2시간 이동) · 초고속 열차로 파리 이동 · 석식 후 호텔 투숙 	<p>스위스</p>
<p>제8일 5월20일 (토)</p>	<p>파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텔 출발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베르사유 궁전 관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시간 : 5월 20일(토) 10시 ■ 주 소 : Place d'Armes, 78000 Versailles, France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로크 건축양식의 최고라고 불리는 베르사유 궁전 관람 · 문화재 보존 및 관리 방식 벤치마킹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식 후 호텔 투숙 	<p>프랑스</p>
<p>제9일 5월21일 (일)</p>	<p>파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텔 출발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루브르 박물관 관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시간 : 5월 21일 (일) 10시 ■ 주 소 : Rue de Rivoli, 75001 Paris, France ■ 홈페이지 : http://www.louvre.fr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진 세계 3대 루브르 박물관 관람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항으로 이동 · 파리 출발(인천 향발) 20:05 	<p>프랑스</p>
<p>제10일 5월22일 (월)</p>	<p>인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국제공항 도착 15:05 	

II 사전 준비 활동

□ 공무국외출장 추진을 위한 사전회의

○ 1차 회의(주례회의)

- 일 시 : 2023. 2. 13.(월) 09:00 ~
- 장 소 : 제1상임위원회실
- 참석자 : 14명(의원 8명, 공무원 6명)
- 안 건 : 2023년 이천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기간 및 방문국가 선정
- 주요회의내용
 - 선진 지방의회 제도 벤치마킹을 위한 목적에 걸맞은 출장국가 선정에 대한 논의.
 - 지난 7년간 주요방문기관을 포함한 이천시의회 공무국외출장 현황 및 최근 몇 년간 타 시·도 및 타 시·군의회의 출장 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이천시의회가 필요한 의정활동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출장 국가를 선정.
 - 이천시가 유네스코 창의도시이자 도자 문화예술의 도시인 점을 감안하여 세계 문화유산을 많이 보유하고 그 가치를 위해 보존·관리가 철저한 국가 선정.
 - 출장 기간은 비회기 기간인 5월 초·중순으로 확정.



주례회의 ('23. 2. 13.)

○ 2차 회의(주례회의)

- 일 시 : 2023. 3. 2.(월) 09:00 ~
- 장 소 : 제1상임위원회실
- 참석자 : 15명(의원 9명, 공무원 6명)
- 안 건 : 공무국외출장 출장국가 비교 견적 및 출장 도시 선정

■ 주요회의내용

- 지난 회의시 선정된 국가중 사전검토 후 의원간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 국가를 선정하고 공식방문기관 및 현장 방문지를 협의함.
- 출장 기간은 5.13. ~ 5.22.로 확정



주례회의 ('23. 3. 2.)

○ 3차 회의(주례회의)

- 일 시 : 2023. 4. 10.(월) 09:00 ~
- 장 소 : 제1상임위원회실
- 참석자 : 15명(의원 9명, 공무원 6명)
- 안 건 : 공무국외출장 세부일정 보고 및 조율
- 주요회의내용
 - 지난 회의시 협의한 공식방문기관과 현장방문지를 최종 확인.
 - 방문국가의 유의사항 및 공식방문기관 방문시 필요한 사항 등을 안내.
 - 방문기관 질문지 작성 및 업무분담 등 최종 세부 일정 확인.



주례회의 ('23. 4. 10.)

□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 관련근거

- 「이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4조, 제5조

○ 심사위원회 개요

- 일 시 : 2023. 4. 18.(화) 14:00 ~
- 장 소 : 제2상임위원회실
- 참석자 : 심사위원회 위원 7인 중 4인 참석(민간위원)
- 안 건 : 2023 이천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계획(안)
- 회의결과 : 원안가결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23. 4. 18.)

Ⅲ 출장국가 개요

□ 이탈리아

【일반현황】

- 국명 : 이탈리아공화국
- 수도 : 로마
- 인구 : 6239만명 (2021)
- 면적 : 30만 2072km²
- 기후 : 지중해성 기후
- 종교 : 가톨릭(85.7%), 정교회(2.2%), 이슬람(2%)
- 언어 : 이탈리아어
- 민족 : 라틴계이탈리아인이 대부분
- GDP : 2조 1063억\$ (2021)



○ 정치형태

■ 정부형태 : 내각책임제

■ 주요인사

- 국가원수 : 세르지오 마타렐라 (Sergio Mattarella) 대통령 ('15.2월~)
- 총리 : Giorgia Meloni('22.10월~)
- 외교장관 : Antonio Tajani('22.10월~)

■ 주요내용

- 이탈리아는 우리나라와 달리 대통령은 존재하지만 대통령제 공화국이 아닌 의원 내각제 공화국이다. 국가원수는 대통령이며 정부의 수장은 총리로 국가원수와 정부 수장이 동일하지 않음. 대통령은 상징적인 국가원수로 재선이 가능하며 7년 임기로 총리임명권, 내각 거부권 등을 가짐. 대통령은 직접선거에 의하지 않고 국민에 의해 선출된 상하원이 선출됨.
- 총리의 임기는 정해져 있지는 않고 상하원에서 신임할 때까지 재임이 가능. 총리는 국정을 총괄하고 책임지며, 장관들의 활동을 총괄 추진하는 등 행정의 방향과 통일성을 책임지는 역할을 함. 총리 역시 국민의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되지 않고 대통령의 추천과 상하원의 신임을 통과한 후 대통령이 임명.

○ 의회형태

■ 의회구성 : 하원400석 상원200석

■ 주요내용

- Parlamento italiano. 이탈리아의 의회. 양원제를 채택.
- 다른 양원제 국가에 비하면 매우 이질적인 양원제인데, 거의 완전하게 동일한 권한을 가진 입법부를 2개를 둔 구조를 가지고 있음.
- 상원이든 하원이든 마음껏 입법과정을 거치고 반대쪽에게 견제를 받는 구조. 이러한 제도를 완전양원제라고 함. (일반적으로 양원제라고 하면 영국식 신분의회나 연방국가의 지역대표/국민대표의 구별이나, 내각책임제 국가의 이권분립에서 나타나는 내각의 폭주를 견제하기 위해 상원이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탈리아는 단순히 의회가 2개임.)
- 의회해산이 없다는 가정 하에 상원과 하원의 임기는 모두 5년, 총선은 상하원 동시에 치러짐.
- OECD 국가 가운데서 투표율은 높은 편.
- 상원(공화국 원로원)
 - 한국의 국회의원 총선거처럼 1인 2표제, 74석은 소선거구제를 통해, 122석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통해 선출, 나머지 4석은 해외 거주 이탈리아인들을 위한 의석으로 거주지별로 선거구를 나눠 불구속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선출.
 - 그 외에도 종신 상원의원들이 5명 있는데 이들은 대통령이 지명하며, 주로 사회 각

계층에서 존경을 받는 명망가들로 구성, 그리고 이들과는 별도로 직전 대통령 역시 당연직 종신 상원의원

- 의사당은 마다마 궁(Palazzo Madama)
- 하원(대의원)
 - 상원처럼 1인 2표제로, 147석은 소선거구제를 통해, 245석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통해 선출, 나머지 8석은 해외 거주 이탈리아인들을 위한 의석으로 거주지별로 선거구를 나눠 불구속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선출
- 의사당은 몬테치토리오 궁(Palazzo Montecitorio)

□ 스위스

【일반현황】

- 국명 : 스위스 연방
- 수도 : 베른
- 인구 : 869만명 (2021)
- 면적 : 4만 1285km²
- 기후 : 온난한 지중해성 기후
- 종교 : 가톨릭(35%), 개신교(23%), 이슬람교(5%), 기타(37%)
- 언어 : 독일어(63%), 불어(23%), 이탈리아어 (8%) 등
- 민족 : 독일인, 프랑스인, 이태리인, 기타
- GDP : 8125억\$ (2021)



○ 정치형태

- 정부형태 : 내각책임제의 연방공화국
 - 26개 칸톤(canton)으로 구성
 - ※ 정부형태 : 스위스식 회의체 정부(연방각료 7인으로 구성되는 연방각의)

■ 주요인사

- 대통령 : 연방각료 7인 윤번제(임기 1년)
 - ※ 2023년 : 알랭 베르세(Alain Berset) 대통령 겸 내무장관
- 주요정당 : 4대 정당(국민당, 사민당, 자민당, 기민당)으로 안정된 연정을 유지

○ 의회형태

- 의회구성 : 양원제(임기 4년), 상원 46석, 하원 200석
- 주요내용

- Bundesversammlung. 스위스 연방의회. 양원제를 채택
- 이탈리아와 마찬가지로 상원과 하원의 권한이 동등한 편, 임기 4년
- 하원(국가의회)
 - 전 국민의 보통선거로 선출. 스위스 26개 주를 하나의 선거구로 하는 권역별 개방명부 비례대표제로 선출. (현재의 비례대표제는 1918년에 도입된 것으로, 그 전에는 소선거구제와 중선거구제를 병행했으나 사표가 많아지는 등의 이유로 일부 국민들이 비례대표제를 제안했고 이것이 국민투표에 회부되어 현재의 비례대표제가 채택).
 - 의석은 인구에 비례해서 할당되나, 아무리 인구가 적어도 주별 최소 1석은 보장현재 의석이 가장 많은 주는 취리히로 35석이며, 니트발덴, 옹발덴, 아펜첼아우로덴, 아펜첼이네로덴은 1석뿐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소선거구제로 선출.
- 상원(전주의회)
 - 각 주마다 2석 혹은 1석이 할당. 바젤슈타트, 바젤란트, 아펜첼아우서로덴, 아펜첼이네로덴은 1석만을 할당받으며 나머지 22개 주는 2석을 할당.
 - 대부분의 주에서 중선거구제 방식을 채택.

□ 프랑스

【일반현황】

- 국명 : 프랑스공화국(The French Republic)
- 수도 : 파리(Paris)
- 인구 : 6781만명 (2022.1)
- 기후 : 해양성·지중해성 기후
- 면적 : 67만 5417km² (속령 포함)
- 종교 : 가톨릭(65%), 무종교(23%), 이슬람(9%), 기타
- 언어 : 프랑스어
- 민족 : 켈트족, 라틴족, 슬라브족 등
- GDP : 2조 9355억\$ (2021)



○ 정치형태

- 정부형태 :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혼합
- 주요인사
 - 대통령 : 에마뉼 마크롱(Emmanuel MACRON)
 - 총 리 : 엘리자베스 보른(Elisabeth Borne) (2022.5.16.~)

- 외교장관 : 카트린 콜로나(Catherine Colonna) (2022.5.20.~)

○ 의회형태

- 의회구성 : 양원제, 하원 577석, 상원 353석
- 하원(국민의회)
 - 다른 나라처럼 법안을 제의하고 통과시킬 권한을 갖음.
 - 5년에 한 번씩 직접 선거로 모든 의원을 선출, 소선거구제와 결선투표제가 적용.
 - 577석 중 566석은 해외영토를 포함한 프랑스 국내의 선거구에서 선출, 나머지 11석은 해외 거주 프랑스인들의 재외선거를 통해 선출.
 - 5년 임기 이전에 대통령이 하원을 해산 있음.
 - 의사당은 파리 제7구에 위치한 부르봉궁.
- 상원
 - 각 지자체장과 의회 의원, 하원의원, 상원의원 등으로 구성된 약 15만명의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 임기는 6년으로 3년마다 반수를 새로 선출. 2명의 상원의원은 프랑스 본국의 영토 외 국민을 대변하기 위해 특별선출
 - 원칙적으로 법안이 통과되려면 국민의회와 상원의 가결이 필요하지만 국민의회와 상원의 의견이 다르다면 국민의회에 최종 투표 권한이 넘어가기 때문에 상원의 권한은 국민의회에 비해 작고, 국민의회를 견제하는 역할 밖에 하지 못함.

IV 방문일자별 출장내용

□ 2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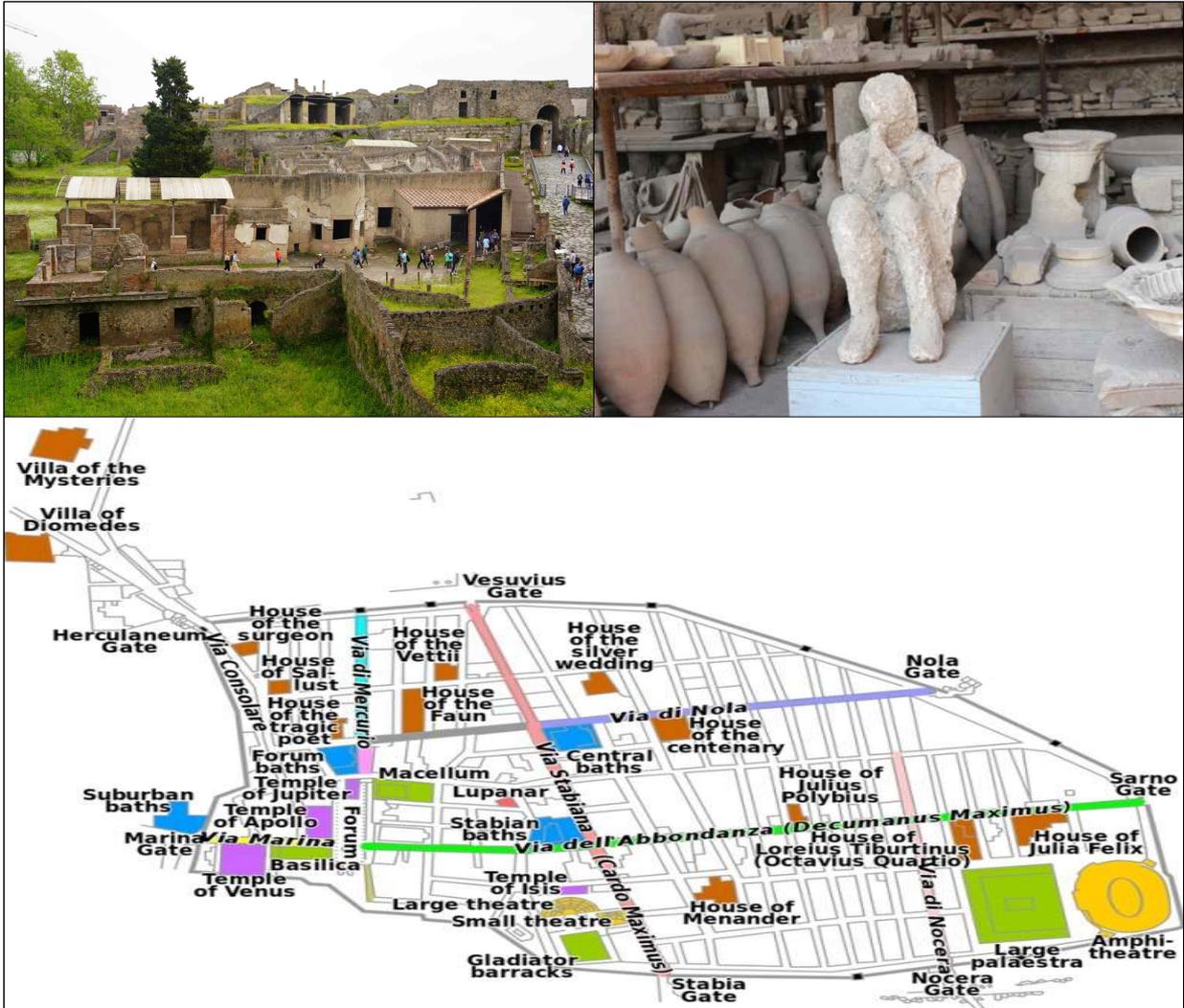
【세계문화유산 폼페이 역사지구 방문】

- 방문일시 : 2023. 5. 14.(일) 11:00 ~
- 방문위치 : Viale delle Ginestre, 80045 Pompei NA, Italy
- 방문목적 : 세계문화유산 보존·관리 사례 견학

- 현 이탈리아 캄파니아주 나폴리현 근처에 위치한 도시이자, 역사적으로 유명한 고대 로마의 도시이다. '멸망한 도시들' 가운데 손꼽히는 도시로, 본래 농업과 상업이 활발했으며 로마 귀족들의 휴양지로 매우 번성했던 도시였다. 하지만 서기 79년 8월 24일 베수비오 화산의 폭발로 인해 단 18시간 만에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 오랫동안 역사에서 소멸한 도시 중 하나로 1592년 폼페이 위를 가로지르는 운하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건물과 회화작품들이 발굴되어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시 폭발로 인하여 폼페이 인구의 대부분이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으

나 이는 잘못된 정보이며 당시 폼페이 전체 인구는 약 2만명 안쪽으로 추정하는데 대부분의 인원은 폭발의 전조현상으로 대피하였으며, 전체 인구의 약 10퍼센트인 약 2,000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사진자료



【카포디몬테 미술관 및 도자기 공방】

- 방문일시 : 2023. 5. 14.(일) 15:00 ~
- 방문위치 : Via Miano, 2, Naples, Italy
- 방문목적 · 18세기 이탈리아 도자기 역사의 중심지인 도자기 공방 방문
· 도자문화예술의 도시인 이천시와 비교 분석

- 나폴리 부르봉가의 칼로 7세상(1734년-1759년)이 어머니 에리자벳 파르네제로부터 계승한 미술품 컬렉션을 전시하기 위해서 건설한 궁전이 바로 이 바로크 로코코 양식의 카포디몬테 미술관이다. 같은 왕궁안에는 넓고 아름다운 정원과 식물원도 있고 카포디

몬테의 언덕에서는 나폴리 거리의 동쪽을 일망할 수 있다. 부지내에는 그 밖에도 왕자 코미야전, 유명한 도자기 카포디몬테 도자기 공방, 넓은 공원에 둘러싸인 왕궁, 성젠나로의 예배당, 팻자네리아, 여왕의 주거, 은자의 주거인 카프치니가 있다.

- 궁전1층에는 도자기 미술관이 있어 섬세하고 아름다운 카포디몬테 도자기를 볼 수 있다. 그 도자기는 당시, 마이센이나 세이불과 견줄만한 매우 뛰어난 도기 작품이다. 2층은 왕궁 주거가 있고 3층에는 이 궁전에서 제일의 볼 만한 곳인 회화관(Pinacoteca 피나코테카)가 있다. 안에는 무수한 파르네제 컬렉션 회화가 연대순으로 줄지어 있어서 매우 보기 쉽고 시대의 변천과 회화 기술의 진보와 유행을 간파할 수 있다.

■ 사진자료



□ 3일차

【티볼리시의회 미팅】

- 방문일시 : 2023. 5. 15.(월) 10:00 ~
- 방문위치 : Piazza Trento e Trieste, 03014 Fiuggi FR, Italy
- 참석자 : 출장단 전원
- 면담자 : Giuseppe Proietti (티볼리 시장)
- 방문목적 · 지방의회 정책결정과정 및 주요정책 우수사례 비교
· 주요 정책 및 현안 문제에 대한 의회와 집행부간 해결 방법

■ 티볼리 현황

- 이탈리아 중부, 라치오 현 중부, 로마 현 중동부의 관광·휴양도시이다. 로마에서 북동쪽으로 30km 지점에 위치하며 테베레 강지류 아니에네 강 연안에 위치해 있다. 아름다운 경관으로 인해 고대 로마인들이 별장을 짓는 등 휴양지로 각광받았다. 인구는 약 6만여명이며 제지와 화학공업으로 유명하다. 고대부터 로마인의 별장지였으며, 지금은 교회가 된 베스타신전, 에스테가 르네상스 양식의 별장, 12세기 로마네스크 양식의 중

루가 있는 대성당이 있다.

- 아름다운 정원으로 유명한 빌라데스테는 1550년 추기경 이폴리토데스테의 의해 축조되었으며 르네상스 문화를 상징하는 건축물이다. 유럽의 정원 설계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2001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 티볼리는 인구비례에 따라 선출된 24명의 의원이 있다. 임기는 5년으로 3년주기로 시의 예산을 심의하고 시장의 공약을 1년마다 확인하는 역할도 한다. 의회에서는 10년 기준의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주정부에서 이를 허가한다. 행정부의 집행위원회 의원은 시의회 의원들 중에서 선출된다.

☑ 주요 질의 답변

■ (김하식 의장) 시장과 의원의 선출방법은 어떠한지?

- ☞ 시장하고 시의원은 시민들이 직접 뽑고,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다. 투표권자의 시민은 시장 1명과 의원1명을 투표한다. 의원들이 다 선출되면 의원끼리 투표하여 의장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 (김재현 부의장) 인구가 5~6만명이고 의원이 24명인데 한국의 지방의회제도와 대비하여 의원수가 많다. 의원들은 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 ☞ 의원들은 실질적인 행정적 업무보다는 시의 중요한 안건들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주요 일들은 시장과 집행기관에서 추진한다.

■ (김재현 부의장) 한국에서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입법활동을 많이 한다. 여기서도 시의원들은 입법활동이 활발한지? 주민 편의에 대한 조례 등 입법활동에 대해..

- ☞ 자치법규를 제정·개정하는 경우 먼저 시장 또는 집행기관에 해당하는 시 위원회 위원들이 시의회에 자치법규 제·개정을 요청한 후, 시와 시의회가 협의하여 제·개정이 이루어 진다. 시의회에서도 자치법규에 대한 발의권을 가지고 있다.

■ (김재국 의원) 자치법규 입안시 자율성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지?

- ☞ 이탈리아의 지방행정 특징 중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각 도시 특징에 걸맞은 보다 광범위한 자치권이 헌법으로 보장된다. 해당 지역 특성과 자주성을 특화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다만 건축, 도시계획 관련 법규에서는 제한이 많다.

■ (임진모 의원) 시장도 정당이 있는지? 의회의 다수석 정당과 어떻게 되는지?

☞ 의무적으로 정당이 있는 시장이 나와야하는 건 아니지만 현재는 시민들의 투표로 뽑힌 시장이고 나라의 주된 당들이 아닌 지방당에 속해 뽑힌 시장이다. 또한 시의원 대다수가 그걸 지지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정당에 속해서 선출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 (김하식 의장) 우리시의회의는 여야가 있고, 국민의힘 6명, 민주당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티볼리는 어떠한지?

☞ 중도우파당이 15명, 중도좌파당이 9명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 (박노희 자치행정위원장) 시에서 추진하려는 정책 결정과정에서 의회와의 갈등 해결 방식은 어떠한지?

☞ 시장과 의원 그리고 집행부 간부들이 지속적인 모임을 갖는다. 새로운 안건과 시정방향 및 의정방향에 대하여 조율을 자주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의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해 집행부가 실행을 하게 되는데, 이를 집행부가 거부할 경우 집행부가 실각을 할 수도 있다. 의원들의 투표로 시장직을 잃어버리게 되어 시장을 새로 선출하게 된다.

■ (박준하 의원) 최근에 주요한 자치법규 입안 사례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 이탈리아는 세계적인 문화유적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로서 이러한 유산들은 잘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제도에 관심을 두고 있음. 티볼리도 마찬가지. 이러한 입법적 환경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의 문화유산들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하는 정책을 만들어 시행하고, 관련 제도를 제정하거나 개선하는 입안에 많은 중점을 두고 있음. 또한 이를 위한 다양한 입법 사례를 연구하기 위해 관련 주변국들과 협력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김하식 의장) 혹시 한국과 자매 혹은 우호 관계를 맺은 도시가 있는지?

☞ 티볼리에서는 한국의 도시와 아직 자매 혹은 우호 관계의 도시는 없다. 최근 한국에서 두 도시가 티볼리에 방문한 적은 있다.

■ 사진자료



【바티칸 박물관 관람】

- 방문일시 : 2023. 5. 15.(월) 14:00 ~
- 방문위치 : Via Vaticano, 00165, Roma RM, Italy
- 방문목적 : 세계 중요 문화재를 다수 소장한 박물관 관람

- 바티칸 미술관은 바티칸 시내에 위치한 미술관(박물관)이다. 물론 따로 건물 하나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유명한 시스티나 경당을 포함해서 바티칸 내에 있는 여러 미술관과 갤러리들을 통틀어서 부르는 명칭이다. 잘 알려진 레오나르도 다 빈치,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 라파엘로 산치오 등의 대가들이 남긴 걸작 르네상스 회화들과 역대 교황들이 수세기에 걸쳐 수집한 막대한 미술 작품들을 소장하고 있다.
- 1506년 1월 14일, 로마 에스퀼리노 언덕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당 인근 포도밭에서 라오콘이 발견되었다. 이 소식을 들은 교황 율리오 2세는 교황청에서 교황을 위해 일하고 있던 줄리아노 다 상갈로와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를 현장으로 보냈고, 이들이 라오콘을 매우 높게 평가하자 포도밭 주인으로부터 라오콘을 구입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교황은 자신의 거처인 사도 궁전에 딸린 벨베데레의 안뜰에 라오콘을 진열하고 일반에 공개해 사람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바로 이때를 바티칸 미술관의 시작으로 보고 있으며, 교황청에서도 2006년 미술관 창설 500주년을 기념해 바티칸 네크로폴리스 발굴 현장을 영구 개방했다. 1771년 교황 클레멘스 14세가 고대, 르네상스 시대의 조각품을 수집한 것을 토대로 후임 교황 비오 6세가 소장품을 확대해 두 교황의 이름을 따 비오 클레멘스 미술관이라고 명명했다. 교황 비오 7세 때는 키아라몬티 미술관과 브라치오 누오보가 신설되었고, 교황 그레고리오 16세 때는 1836년 에트루리아 미술관 및 1839년 이집트 미술관이 각각 개관했다. 교황 비오 9세 때인 1854년 비오 그리스도교 미술관이 개관되었으며 교황 비오 11세 때인 1932년, 보르자 아파트에 있던 기존의 회화관(피나코테카)이 새로운 건물을 지어 재개관했다.

■ 사진자료



□ 4일차

【피렌체 두오모 성당】

- 방문일시 : 2023. 5. 16.(화) 13:00 ~
- 방문위치 : Piazza del Duomo, 50122 Firenze, Italy
- 방문목적 : 꽃의 성모마리아 성당으로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두오모 성당 방문

- 이탈리아 피렌체의 랜드마크이자 크고 아름다운 주교좌 성당. 15세기에 필리포 브루넬레스키가 만든 세계에서 가장 큰 조적(masonry) 돔으로 유명하며, 이 성당의 돔은 이후 서양 건축에 큰 영향을 주었다. 로마의 피에트로 대성당, 런던의 세인트폴대성당, 밀라노 대성당에 뒤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성당이다. 정식 명칭인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는 '꽃의 성모 마리아'라는 의미다.
- 두오모는 영어의(Dome)과 같은 의미로 집을 의미하는 라틴어 '도무스(Domus)'에서 유래한 말인데, 이탈리아어로는 '대성당' 자체를 의미하며, 이탈리아에는 지역마다 두오모(대성당)가 있다.
- 사진자료



【피렌체시의회 미팅】

- 방문일시 : 2023. 5. 16.(화) 15:30 ~
- 방문위치 : Palazzo Vecchio Piazza Della Signoria, 50122 Firenze, Italy
- 참석자 : 출장단 전원
- 면담자 · Luca Milani (피렌체시의회 의장)
· Riccardo Gelli (이탈리아 피렌체 한국영화제 조직위원장)
- 방문목적 · 지방자치 및 의회운영 주요정책 정보 교환
· 교류 활성화 방안 논의

■ 피렌체 현황

- 피렌체(이탈리아어: Firenze, 영어: Florence 플로렌스)는 이탈리아 중부 토스카나주의 주도이다. 피렌체현의 현청 소재지이며, 인구는 38만명이고 근교의 인구까지 합치면 총 약 150만명이다. 토스카나 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이기도 하다. 피렌체는 아르노 강변에 위치해 있으며 역사상 중세, 르네상스 시대에는 건축과 예술로 유명한 곳이었다. 중세 유럽의 무역과 금융의 중심지였으며 종종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본고장으로 불리기도 한다. 오랜 세월동안 메디치 가문이 다스렸고, 1865년에서 1870년까지는 이탈리아 왕국의 수도였다. 매년 수백만이 넘는 관광객들을 끌어모으고 있으며, 1982년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선정되었다.
- 피렌체 지방 자치 당국의 입법부는 인구비례제로 5년에 한번 씩 뽑힌 36명의 의원으로 이뤄진 시의회(Consiglio Comunale)이다. 행정부는 시장이 뽑은 7명의 평가인들로 이뤄진 시위원회(Giunta Comunale)이다. 가장 최근의 시장은 다리오 나르델라(Dario Nardella)다.
- 피렌체 지방 자치 당국은 5개의 행정 자치구(Quartieri)로 나뉜다. 각 행정 자치구는 의회(Consiglio)와 피렌체 시장에게 선출된 시위원회의 관리를 받는다. 도시 조직은 이탈리아 헌법의 지배를 받으며, 자치구들은 피렌체 시장에게 여러 주제(환경, 공사, 대중 보건, 지역 상권 등)의 구속력 없는 의견 조연과 시의회가 그들에게 위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을 지녔다.

☑ 주요 질의 답변

■ (박명서 운영위원장) 이탈리아 지방의회의 일반적인 구성은 어떠한지?

- ☞ (루카 밀라니) 이탈리아 각 주는 비례대표제에 입각해서 단원제의 주 의회를 구성하고, 주 의회 의원수는 주의 인구 규모에 따라 대략 30명부터 80명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주 의회는 주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는 주지사가 통할하도록 되어 있음.

■ (송옥란 산업건설위원장) 피렌체에서 의회의 기능이나 가치를 무엇에 두는지?

☞ (루카 밀라니) 피렌체에서도 마찬가지로지만 최근 이탈리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로 자연보호, 환경자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 문화유산과 함께 어우러져 가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가장 큰 가치로 둔다. 피렌체의회에서는 2030년도까지 피렌체를 깨끗한 도시로 만드는 것이 가장 최우선 목표이다.

■ (김재현 부의장) 피렌체시와 시의회와의 관계에서 감시와 견제가 이루어지는지? 예산결산에 대해 시의회 권한이 얼마나 있는지?

☞ (루카 밀라니) 견제는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시장은 주로 여당쪽에서 선출이 되는데, 야당의원들은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부를 견제한다. 예산결산에 관하여도 의회에서 결정권이 있다. 주요 결정사항은 의원 36명이 투표로 이루어진다.

■ (임진모 의원) 시장과 총리가 있다고 했는데, 당은 어떻게 되는지?

☞ (루카 밀라니) 총리하고 시장은 반대당이다. 그리고 시의회 의장과 시장은 같은당이다.

■ (송옥란 산업건설위원장) 시장과 의원들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지?

☞ (루카 밀라니) 의원과 시장이 함께 일을 한다. 회계재정부문에 관해서는 의원의 승낙이 떨어져야 시장이 처리할 수 있다. 특수상황 때, 예를들어 코로나와 같은 상황에는 경찰이나 병원이 하는 부분을 시장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또한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시장에게 많은 권한이 부여된다.

■ (박준하 의원) 저는 청년시의원으로 지역의 청년들과 신혼부부, 맞벌이가정을 대변하려고 노력하다. 피렌체 시의장님은 노동자들을 대변하시는데, 다른 의원님들도 각각 세대별·지역별로 담당하시는 분야가 있는지?

☞ (루카 밀라니) 피렌체 시의회 의원들도 개인이 전문성을 가진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시의원으로서도 각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담당을 한다. 예를들어서, 말씀하신대로 저는 노동조합 출신으로 피렌체의 노동자들을 대변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청년, 신혼부부 등 각 분야에 인권대변을 맡은 시의원들이 존재한다.

■ (김하식 의장) 의회간 미팅을 하는데 한국영화제 조직위원장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단순 의회간 미팅을 넘어서 이천시와 피렌체가 잦은 교류로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길 바램. 앞으로도 한국과 이천에 대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리카르도 켈리) 나는 한국 자체를 굉장히 사랑한다. 한국에는 적어도 60번이상 다녀왔으며 그리고 이천과도 많은 접촉이 있다. 오늘도 이천시에서 온다그래서 직접 뵙고 싶었다. 이천에 있는 청강문화산업대학과 교류가 잦다.

■ (박노희 자치행정위원장) 청강대와는 어느과와 무슨 협업을 하는지?

☞ (리카르도 켈리) 음식, 예술, 애니메이션과 협업하고자 한다. 내년에는 피렌체와 함께 전시회를 개최할까하여 올해 10월에 방문할 것이다.

■ (서학원 의원) 이천은 도자기로 유명하다. 향후 이천문화에 대해 피렌체의회 차원에서 이탈리아에 홍보가 가능한지?

☞ (루카 밀라니) 공식적으로 요청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

■ (김하식 의장) 이천시는 프랑스 리모주시와 2015년에 자매도시를 맺음. 제가 청강대를 나왔고 지금도 청강대 여러 교수와 친분이 두터움. 혹시 청강대와 협업 그리고 이천시와 문화교류 등에 도움이 될것이 있다면 항상 돕겠음.

☞ (리카르도 켈리) 말씀만으로도 너무 고맙다. 말씀드린대로 올해 한국을 갈 것이다. 부산페스티벌에 갔다가 서울을 방문한 후 청강대를 갈 예정이다. 방문전에 직접 연락을 하겠다.

■ 사진자료





**Delegazione da Icheon in Sud Corea ricevuta a Palazzo Vecchio
Scambi culturali in arrivo**



Il presidente del consiglio comunale **Luca Milani** e il console onorario della Corea del Sud a Firenze **Riccardo Gelli** hanno dato il loro benvenuto ieri pomeriggio a **Palazzo Vecchio** a una delegazione della città di Icheon, nella Corea del Sud. La delegazione era particolarmente interessata alla formazione e ai lavori del consiglio e alla storia di **Palazzo Vecchio**. Icheon, che ha 231.756 abitanti, è membro Unesco della rete delle città creative. Ogni due anni si tiene il festival internazionale della ceramica, visitato da oltre 300.000 persone.

이탈리아 피렌체 현지의 언론보도

□ 5일차

【세계문화유산 산마르코 광장 및 성당 탐방】

- 방문일시 : 2023. 5. 17.(수) 10:00 ~
- 방문위치 : Piazza San Marco 328, 30100 Venezia Ve, Italy
- 방문목적 · 세계문화유산 베네치아 문화지구 시찰
 - 광장문화연구

- 산마르코 광장(이탈리아어: Piazza San Marco)은 이탈리아 베네치아에 위치한 광장으로, 베네치아의 가장 유명한 광장이며 베네치아의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 역할을 하던 광장이다. 베네치아에서는 산 마르코 광장을 단순히 '광장' (la Piazza)라고 지칭한다. 산마르코 광장과, 피아제타, 그리고 로마 광장을 제외한 다른 모든 공공 공간들은 광장이라고 불리는 대신에, 들판들이라는 뜻을 가진 캄피라고 불렸다. 작은 광장이라는 뜻을 가진 피아제타(la Piazzetta)는 베네치아 석호 방향 남동쪽으로 산 마르코 광장이 연장된 것이다. 산마르코 광장은 피아제타와 함께 베네치아의 사회적, 종교적, 정치적 중심지를 형성했고, 보통 하나처럼 여겨졌다.
- 웅장한 광장은 역사적인 건물들과 명소(산 마르코 대성당, 두칼레 궁전, 캄파닐레 종탑, 시계탑, 코러 박물관) 들로 둘러싸여 있으며 한쪽 면은 바다를 향해 열려 있다.
- 사진자료



【베니스 수상도시 견학】

- 방문일시 : 2023. 5. 17.(수) 14:00 ~
- 방문목적 · 수상도시 관리실태 현장 견학

- 이탈리아 북동부 베네토의 중심 도시. 동시에 해당 도시를 수도로 삼던 과거의 베네치아 공화국의 국명이기도 했다. 흔히 베니스(Venice)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영어식 발음이다. 본토 이탈리아어 발음으로는 베네치아(Venezia)다. 프랑스어로는 브니즈(Venise), 독일어로는 베네디히(Venedig)라고 부른다. 인구는 약 63만명으로 일반적인 이미지와 달리 이중 대부분은 바다 위의 구도심이 아니라 육지 쪽의 신도시에 살고 있다. 그리고 신도시에 베네치아의 창구인 베네치아 마르코 폴로 국제공항과 산타 루치아 기차역이 있기도 하다.
- 현대 도시로서의 중심지는 신도시로 상당히 옮겨왔고, 구도심은 관광지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구도심 도시 전체에 수로가 뚫려 배를 타고 다닌다 해서 물의 도시로 유명하며, 현재도 베네치아 구도심 내부에는 자동차 도로가 하나도 없다. 구도심 입구쪽의 로마광장(Piazzale Roma, 기차역 옆에 있다)에 시외버스와 차들이 돌아다니지만, 안쪽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단 현대의 차량도 볼 수 없다. 보행자도로도 좁은 다리나 계단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 오토바이조차 한 대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새벽에도 차량 소음 등은 전혀 없다. 거기에다가 자전거를 타고 다녀도 벌금을 문다. 따라서 현재에도 구도심 내 이동수단은 튼튼한 두 다리와 수상택시, 수상버스(바포레토) 뿐이다. 심지어 이들도 운행시 발생하는 파도로 인한 도시 균열을 막기 위해 좁은 운하에서는 7km/h, 넓은 곳에서는 11km/h 정도로 속도 제한을 두고 있다.

■ 사진자료



□ 6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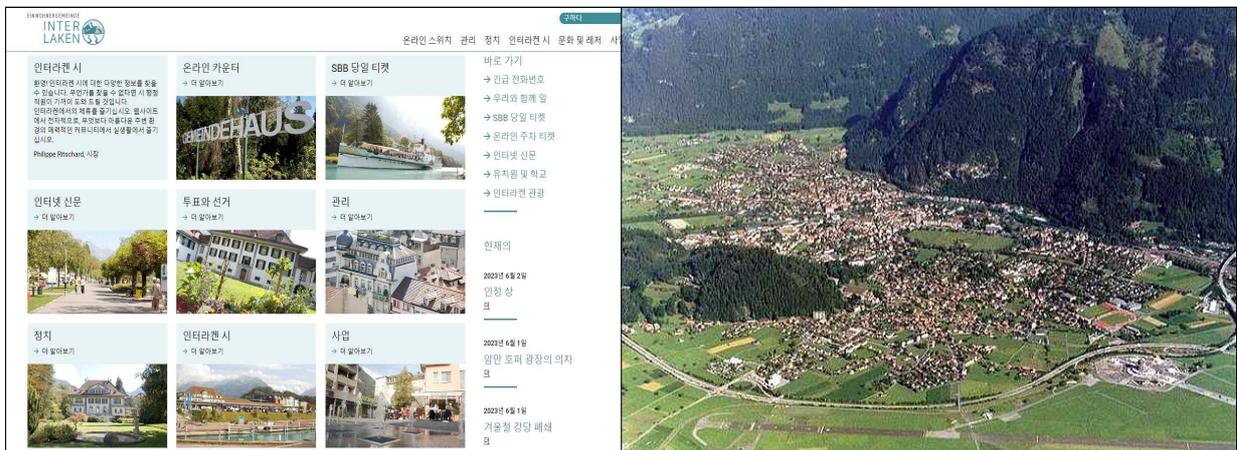
【스위스 인터라켄의회 방문】

- 방문일시 : 2023. 5. 18.(목) 16:00 ~
- 방문위치 : General-Guisan-Strasse 43, 3899 Interlaken, Swiss
- 홈페이지 : <https://www.interlaken-gemeinde.ch/>
- 방문목적 · 지방자치제도 및 주민자치 비교분석
 - ※ 출장 기간중에 해당 기관 일정 변동으로 공식면담은 이뤄지지 못함

■ 인터라켄 현황

- 스위스 베른 주에 위치한 도시이다. 인구는 6,100여명으로 이름은 호수들(laken) 사이(inter)라는 뜻의 독일어이다. 이름대로 동쪽에 있는 브리엔츠(Brienze) 호수와 서쪽에 있는 툰(Thun) 호수 사이에 위치해 있는 골짜기 마을이다. 융프라우 등 유명 관광지를 끼고 있어 20세기 초부터 융프라우 산악철도를 개통하는 등 일찍이 관광 도시로 성장했다. 인터라켄의 동쪽에 있는 인터라켄 동역(Interlaken Ost)을 중심으로 그린델발트 터미널 또는 라우터부룬넨(Lauterburunen)과 뵐엔(wengen)을 거쳐 융프라우요흐 꼭대기로 향하거나 휘르스트(first) 등 각지로 향하는 산악 철도가 운행하고 있으며, 유럽 철도에서 파리와 베를린에서도 이 역까지 직통 열차가 다닌다.
- 인터라켄은 인터라켄시민들을 대표하며 투표권이 있는 시민들이 선출한 3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4년이다. 제26대 의회는 2021년 1월 1일에 시작해 2024년 12월 31일에 끝난다. 시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 구성원을 선출하고 감사기관(외부전문회사)를 임명한다. 매년 의장단을 선출한다.

■ 사진자료



□ 7일차

【융프라우 산 시찰】

- 방문일시 : 2023. 5. 19.(금) 10:00 ~
- 방문목적 · 친환경적으로 운행되는 산악열차 탑승
·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존하며 재난재해 대책에 대한 벤치마킹

- 융프라우(독일어:Jungfrau)는 스위스 베른 알프스의 주요 고봉 중 하나로 해발 4,158m를 가진 봉우리이다. 베른주의 북부와 발레주의 남부 사이에, 인터라켄과 피쉬(Fiesch) 사이에 위치해 있다. 융프라우는 아이거, 뮌히와 함께 베르너 오버란트와 스위스 알프스의 가장 독특한 광경 중 하나인 스위스 고원(Swiss Plateau)이 내려다보이는 거대한 산의 벽을 형성한다. 정상은 1811년 8월 3일 아라우의 마이어 형제와 발레주에서 온 두 명의 샤무아 사냥꾼에 의해 처음으로 정복되었다. 이 등반은 빙하와 베른 알프스의 높은 고갯길에서의 오랜 탐험에 이은 것이다. 1865년이 되어서야 북쪽의 직통 노선이 개통되었다. 20세기 초, 융프라우 철도는 클라이네 샤이덱과 융프라우 사이의 능선을 연결하는 철도 건설로 알프스 산맥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 중 하나가 되었다.
- 열차를 타고 올라가면 유럽에서 가장 높은 기차역이 있으며, 이곳은 자연의 위대함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인간의 도전을 느낄 수 있는 융프라우요흐를 맞이 할 수 있다. 요흐는 산마루를 의미한다. 스팅크스 천문대는 지구에서 가장 높은 천문대는 아니지만 해발 3,573m 높이의 스팅크스 위에서 광범위한 전경을 볼 수 있다. 스팅크스 천문대는 위치한 바위이름인 ‘스�팅크스’를 따서 명명되었다.
- 융프라우 철도에서 놀라운 것은 지금의 시점에서 봐도 놀라운 친환경에너지 체계이다. 주요 에너지원은 태양열과 주변의 소규모 수력발전소를 통해 얻고 있으며, 하행열차에 발전기를 달아 내려가는 동안 발생된 전력을 상행열차에 공급해주는 시스템을 구현했다. 하행열차 3대가 생산하는 전력은 상행열차 1대를 밀어올리는 셈이다.

■ 사진자료



□ 8일차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베르사유 궁전 관람】

- 방문일시 : 2023. 5. 20.(토) 10:00 ~
- 방문목적 : 문화재 보존 및 관리 방식 벤치마킹

- 프랑스 파리에서 남서쪽으로 22km 가량 떨어진 베르사유 시에 있는 프랑스 왕국 부르봉 왕조 시대에 건설된 궁전으로 태양왕 루이 14세의 강력한 권력을 상징하는 거대한 건축물이다. 건설에는 무려 25,000~36,000명의 인부가 매년 동원되었다. 궁전 건물의 면적보다 더 넓은 정원이 유명하며, 별궁으로 대 트리아농 궁과 소 트리아농 궁이 있다.
- 바로크 건축의 대표건축물로, 호화로운 건물과 광대하고 아름다운 프랑스식 정원에 1,400개의 분수들 그리고 오페라와 거울의 방으로 유명하다. 거울의 방은 벽과 천장이 베네치아산 거울로 된 길이 73m의 방인데 1차 세계대전을 형식적으로 마무리지었던 베르사유 조약이 1919년 6월 28일에 이 방에서 이루어졌다. 베르사유 궁전은 한번에 2만 명이나 수용할 수 있는 커다란 안뜰을 둘러싸고 있는데 안뜰에는 대트리아농과 소트리아농을 포함하여 작은 궁전들이 있다. 또한 1783년 이 안뜰에서 세계 최초의 열기구가 떠올랐다.
- 사진자료



□ 9일차

【루브르 박물관 관람】

- 방문일시 : 2023. 5. 21.(일) 10:00 ~
- 방문목적 :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진 세계 3대 루브르 박물관 관람

- 루브르 박물관(Musée du Louvre)은 프랑스 파리의 중심가인 리볼리가에 있는 국립 박물관이다. 현재의 건물은 루브르 궁전을 개조한 것으로, 파리의 세느강 주변을 포함하여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루브르 박물관 앞의 유리 피라미드 조형물인 루브르 피라미드는 근대에 건설된 것으로 한때 어울리지 않다는 평이 많았으나 현재는 루브르를 대표하는 조형물이 되었다. 루브르 박물관의 소장품 규모는 2019년 기준으로 총 615,797점에 달한다. 2021년 3월 24일부터는 온라인 소장품 검색 서비스가 시작되어, 전체 61만 점 중 482,943점에 달하는 소장품을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
-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밀로의 비너스>, <사모트라케의 니케>가 루브르 3대 대표작으로 꼽히며 그 외에도 명작들이 셀 수 없이 많다. 3개의 동으로 나뉘어있으며, 고대 중근동이나 이집트부터 대략 1850년대까지의 고전 작품들을 주로 소장하고 있다. 이집트 고대유물관, 근동 유물관, 그리스와 에트루리아, 로마 유물관, 이슬람 미술관, 조각 전시관, 장식품 전시관, 회화관 그리고 판화와 소묘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사진자료



V 출장 후기

□ 출장 후기 보고자 : 김하식, 박명서, 서학원 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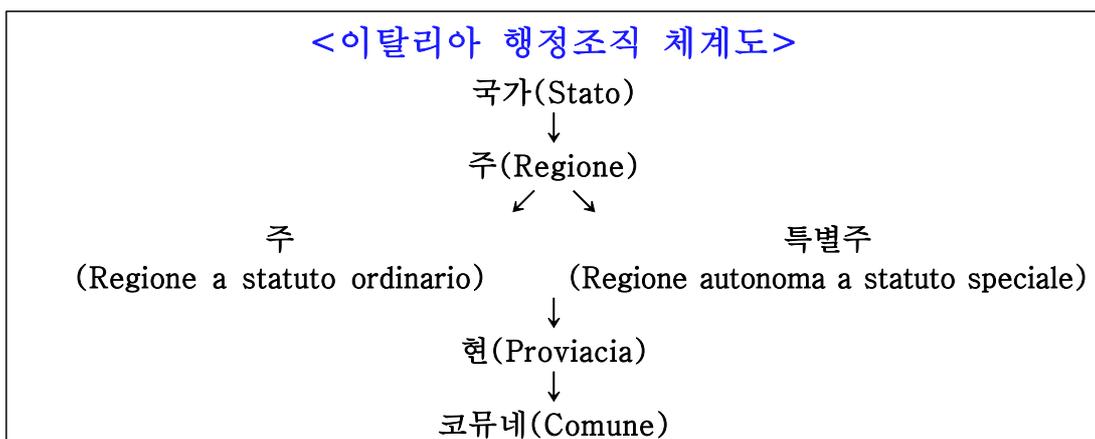
- 지역 안팎으로 지방의회의 출장은 많은 논란이 있어왔고 현재까지도 그 논란은 피해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점은 출장의 주체인 지방의원들이 이와 같은 논란을 타개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국외출장이라는 기존의 인식에서 벗어나 지역의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만한 것을 스스로 공부하고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 국외출장을 두고 여러 논란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출장을 추진한 이유는 앞으로의 시의원으로서 임기 동안 궁극적으로 시민의 기대치를 실현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이며, 이 보고서 역시도 시민의 기대치를 쫓기 위한 노력중의 하나이다.
- 기존의 국외출장과 가장 큰 다른 노력은 사전미팅과 교육을 실시한 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출장은 유럽의 선진국가의 지방의회 방문과 세계문화유산 보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벤치마킹이 주된 목적이다. 우리가 왜 이곳을 방문해야 하는지, 이곳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해당 지역의 주된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주요했다.
- 총 세 번의 사전회의를 통하여 출장 목적에 부합하는 국가와 지역을 선정하였고, 해당 지역을 방문하여 무엇을 습득할 수 있을지 논의하였다. 모든 일정이 확정된 후에는 해당 국가와 지역 및 의회제도에 관한 배경지식을 의원들 모두 습득한 후 출장에 임하였다. 이것은 단순히 외부의 시선을 회피하기 위함이 아니었고 8대 이천시의회 모든 결정은 통상적으로 회의를 통하여 이뤄진 것이 습관화 되어왔고, 의원들 스스로가 국외출장에 임하는 마음가짐이 기존과는 많이 달랐기 때문이다.
- 또한 의원들이 모두 참여하여 여행사를 선정하는 것도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지난 이천시의회 출장, 그리고 타·시군의회의 출장국가를 비교·견적하였고, 여행사 선정에서도 의원 한두명의 일방적인 여행사 선정이 아니라 9명의 의원 모두가 여행사를 비교하고 투표를 통하여 선정하였다. 이 과정은 모두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였으며, 회의가 진행되면서 의원 개인의 의견이 무시되지 않도록 서로 협의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했다. 여행사가 선정된 후에도 여행사 대표가 직접 의회 회의에 참석하며, 사전브리핑을 통하여 이천시의회 출장이 부실하지 않도록 충분한 협조를 해주었다.
- 여행사에만 의존하지 않고, 의회에서 직접 해당 지역의 의회와 공문과 메일을 주고받으며 기관섭외를 참여한 것도 칭찬할 일이다. 보통 여행사가 선정되면 모든 것을 여행사에

맡기기 마련인데, 이렇다보면 여행사의 섭외 범위내에서 방문이 이뤄지거나 대체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이고 출장 목적에 다소 어긋날 수도 있다. 몇 번의 연락을 서로 주고 받으며 일정과 면담자를 확정하고, 사전자료를 건네 받아 전체 의원들이 배경지식을 습득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이런 노력을 통하여 각 의회와의 면담에서는 시장 및 의장과 이탈리아 피렌체 한국영화제 조직위원장 등이 직접 나와 면담을 했고, 현지 언론인도 참여하여 이천시의회와의 면담을 언론에 보도해 주는 등 뜻깊은 결과를 냈다.

- 아쉬운 점도 있기 마련이다. 이천시의회는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지 기관에서 일정 변동과 많은 이동시간 때문에, 공식일정인 기관방문이 당초 계획보다 적어졌으며 면담 시간도 충분하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출장은 출장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의회의 많은 노력이 있었고, 그 노력은 출장을 통하여 보고 느끼고 배운 것을 이천시를 위해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다짐하였다. 또한 출장준비와 출장기간 동안 수고한 사무과 직원들의 뒷받침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 지방자치 및 의회제도 분야 보고자 : 김재현, 김재국, 박준하 의원

- 지방행정체계·제도, 법률, 역사, 문화 전반의 기본적인 차이점을 인식하고 그들의 장점을 그대로 대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향후 지방자치 및 의회제도를 우리시 여건에 맞는 정책방향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더 나아가 실질적인 지방자치 분권의 실현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었다.
- 기관방문을 통해 느낀 점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권위적인 형식을 탈피하고 시민과 함께 발전시켜 나가는 국민의식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지방자치, 지방의회 제도를 정했다고 생각한다. 모든 정책결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하며, 중요 사안에 대하여는 정당을 초월하여 의원간 합의를 통하여 결정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는 이천시의회에서도 지난 7대부터 본회의·상임위원회 활동이 영상으로 생중계되고 있으므로, 의회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음을 생각했다.
- 이탈리아의와 스위스 모두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지방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주(regione), 현(provincia), 기초자치단체(comune)의 세 개층으로 이루어진 지방행정구역 체계속에 각각 자율적이면서 독립적인 입법기관 시스템이 가춰져 있다. 이탈리아 국가의회가 상·하원의 양원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면 지방의회는 이와 유사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 자치 규모와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들 지방의회는 각각의 제도적이고 지역적인 독특성을 인정받으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 기초자치단체(코뮤네)에서 의원 선출방식은 한국과 다소 차이가 있다. 의회 의원 선출시 시민 수가 1만 5천명을 기준으로 그 이하의 경우 시장 후보자가 자신과 함께 의원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며 해당 명부를 토대로 시민들이 직접 시장을 선출하는데, 전체 정족수의 2/3를 당선된 시장이 작성한 의원 후보자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1/3을 기타 정당들에게 배분하게끔 되어있다. 이에 반해 시민수가 1만 5천명 이상의 경우 과반수가 득표를

언어 선출되는 시장이 작성한 의원 후보자에게 총 의석수의 60%를 배분하고, 나머지 40%를 차순위 득표를 얻은 정당들에게 배분한다.

- 시장(Sindaco)은 중앙정부의 수상과 같이 지방정부를 대표하고, 각 지역 대표자로 구성된 위원회(Assessore)를 이끌고 있으며 다양한 정치적 결정을 내린다. 여기서 한국과 또 큰 차이점중에 하나가 시장이 실질적으로 집행부를 이끌어나가는 위원회의 위원을 지방 의회의 의원들 중에서 위촉한다. 따라서 시장은 위원회 위원에 대한 독자적인 임면 권한이 있다고 보편된다.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의 역할과 함께 정치적·행정적 문제에 대한 조정을 하고 있으며, 시장이 추진하는 중요 정책에 대한 승인권과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
- 주요 시사점은 일반적으로 기초단체의 경우 앞서 말한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60%이상의 의원이 같은 당에서 선출된다. 이는 장·단점이 분명하겠지만 지방자치제도가 오래된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제도 자체가 중앙정치와 행정적이고 정치적인 편의에 따라 제도적 보완이나 발전을 해온 것이라기보다는 지방정치의 효율성과 고유성을 강조하면서 오랜 적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개별적이고 자치 수준에 맞는 제도적 보장이라는 목적을 통해 발전되었고 시행되고 있다고 사료된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기초자치단체의 집행부와 의회간 기관대립형 제도에 비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시정방향과 의정방향에 대해 조율하고 협력하는 방식을 높이 평가 할 수 있겠다. 다만 이 제도적 장점을 활용하기까지에는 오랜 지방자치 역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어떠한 정치적 기준에 의거한 양당정치구도가 아닌 지역의 특징에 맞는 지역 정당이나 소수의 권리를 위해 제도적으로 지역에 맞게 조정하여 지방정치를 활성화하고 있는 점 등은 이탈리아 지방선거제가 갖는 정치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다.
- 또한 이탈리아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규모, 환경, 문화유산 등이 매우 다른 특징이 있고, 헌법 및 법률에서 폭넓은 자치입법권을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여하고 있는 점에서는 우리나라와 비슷하면서도 더 강화된 측면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이탈리아 헌법에서 볼 수 있듯이 헌법이 정한 외교관계, 이민, 종교, 방위, 안보, 기초생활보장, 지적재산, 문화재보호, 건축 등을 제외한 범위에서는 주(Regione)에서 자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다.
- 이번 출장 중에 가장 기대가 됐던 곳은 스위스 지방의회의 방문이었다. 일정 중간에 스위스 현지에서 방문 일정이 어렵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는 많은 아쉬움이 있었다. 사전교육과 습득한 배경지식을 통해 본 스위스 지방자치제도는 선진 지방자치제로서 오래된 역사만큼 배울 점이 상당히 많았고, 다른 유럽 국가의 제도와는 또 다른 차이점들이 있었

다. 때문에 현지 면담을 통해 직접 꼭 들어보고 싶었다. 면담은 어렵게 되어 큰 아쉬움이 있지만, 공부를 통하여 습득한 스위스 제도의 특징은 보고서를 통하여 남기고자 한다.

- 일단 스위스의 경우 이탈리아와 비슷하지만 많은 차이가 있다. 연방국가인 스위스는 전 세계적으로 몇 안되는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대표적인 국가로서 행정조직 체계는 연방정부-주정부(칸톤)-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게마:Landsgemeinde) 3개의 계층으로 체계화 되어 있으며 26개의 칸톤, 2천개가 넘는 게마가 다양한 주민자치와 지방분권을 통해 주민이 행복한 스위스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가장 큰 특징은 2천여개의 게마가 각각 지역 특색에 맞는 다양한 주민자치를 펼친다는 것이다. ‘지역의 일은 당사자인 내가 스스로 참여하여 결정하는 것’이라는 자발적 주민참여 문화가 자연스레 이어져오고 있으며, 소규모 지역공동체인 게마라는 직접민주주의 현장은 지역주민들의 성숙한 정치참여 문화가 다른 법률과 제도보다 우선순위에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 각 게마별로 주민자치에도 여러 방법이 있지만 크게 주민총회와 주민투표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눈여겨 볼 점은 ‘주민총회’이다.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스위스에서 주민총회는 곧 자치최고기관이 된다고 보면된다. 대부분의 게마에서 연간 최소 2회 개최를 하며 상정된 안전에 대해 주민이 직접 의견을 제시한다.
- 보통 6월 결산회의, 11월에는 예산회의를 갖고 이 외에 다양한 안전에 대해서도 주민이 직접 발안하고 투표해 의결된다. 즉 행정업무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이 직접 반영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셈이며,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투표권자 전체가 의회 기능을 대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회의 참석 권한은 자치단체기본법 규정 즉 투표권자 규정에 준용하고, 회의에서는 승인사항과 의결사항을 주민이 결정한다. 또 선거를 통해 집행기관의 위원들도 선출한다.
- 인구가 2만이 넘는 자치단체의 경우 의회를 구성한다. 하지만 지방의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와 같은 지방의회가 자치입법권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것도 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의회가 구성되더라도 자치단체기본법을 통해 자치최고기관이 투표권자 전체, 즉 시민으로 규정하고 있는 곳도 많이 있는 점에서 알 수 있다.
- 연간 예산은 각 주민에게 책자로 배부하고 주민들은 언제나 기관을 방문하여 예산서를 검토하고, 분야 담당직원에게 언제든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스위스의 주민참여 예산관련 지방정부의 재정운영은 어떻게보면 제한없이 자유로워 보이지만 오랜 세월동안 정비된 규정에 따라 사회적으로 확립되어 구성된 서로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약간의 차이점은 있지만 자율성과, 책임성,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재정운영은, 유럽

에 비해 과도기적인 우리나라의 예산 제도가 본받고 나아가야할 방향으로 생각된다.

- 시의회에서는 사전협의, 자치규정제정, 승인·의결, 그리고 행정을 감독하는 역할을 주로 수행하며 다양한 위원회를 두고 있다. 크게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조사위원회 등으로 두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는 운영위원회, 예산·회계감사위원회, 시민권위원회 등이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지방의회 권한과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다.
- ‘민주주의라는 말은 헤로도투스 시대 이래 국가의 지배권력이 어떤 특정한 계급에 있지 않고 사회 전체의 구성원에게 합법적으로 부여된 정부형태이다.’ 라는 명언을 남긴 영국의 저명한 정치가였던 James Bryce는 그의 저서를 통해 ‘스위스는 민주주의 국가중 연구할 가치가 가장 큰 나라’라고 칭찬했을 정도로 지방 주민의 자유와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소수권익을 존중하는 스위스의 법 체계를 강조하기도 했다.
- 이탈리아와 스위스 공통점은 헌법에 의한 폭넓은 지방자치제도이다. 헌법에 의해 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지방자치제도 및 주민참여제도가 오랜기간동안 발전해왔음을 알 수 있다. 선진국에서 가장 크게 배울 점은 선진민주주의 정치체제이다. 중앙정부는 국가적 과제만을 담당하고, 지방의 현장 중심사무는 지방정부의 책임으로 명확하게 역할분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야 지방정부를 살릴 것이며, 지방자체제도가 발전하며 지방의회도 덩달아 발전할 것이다.

■ 지방자치제 비교

구 분	한 국	이탈리아	스위스
광역, 기초	시·도 시·군·구	주(Regione) 현(Provincia) 코뮤네(Comune)	주정부(Kanton) 게마(Landsgemeinde)
자치분권	법률에 의한 자치권보장	헌법에 의한 자치권보장	
입법	국회 집중	연방과 주의 입법권 배분 (헌법에 영향을 받지 않는 영역)	
주민참여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청구, 주민참여예산 등		
	다소 제한적 *주민투표:2004년 도입이후 2020년까지 단 10차례 밖에 이뤄지지 않음	광범위한 주민참여제도	광범위한 주민직접참여 (직접민주주의) *게마별로 평균적으로 연간 20회 이상 실시

□ 문화재 관리·보존 분야 보고자 : 송옥란, 박노희, 임진모 의원

- 이탈리아는 전역에 걸쳐 세계문화유산이 존재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국가정책·지방자치단체의 정책도 문화재 관리와 환경 보전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쏟아 붓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도시와 유적을 역사 교육의 장으로 보전하고, 외국 관광객을 위하여 보고 느낄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 최대한 활용하고 있으며, 역사와 조상들의 활동에 대해 건축물과 조각으로 이미지화하여 국가관과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대부분의 길은 차량을 통제하고 있으며, 석조 문화가 발달한 유럽지역에서 예전의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 증·개축에 많은 제한을 두고 철저히 억제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것에 대해 시민들의 불만은 크게 찾아 볼 수 없으며 도시 전체가 세계적인 역사문화 유적지로 조성되는 모습에서 문화재를 아끼는 시민의 마음을 볼 수 있었고, 우리시도 이러한 관점에서 문화재 보전과 관광 명소화를 위해 일관된 정책추진이 선행되어야 함을 생각하게 되는 기회였다.
- 아울러 이탈리아는 엄청난 양의 세계적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체계적으로 양성된 전문 인력을 국내외 곳곳의 문화재 보존·복원 현장에 보내는 자타공인 문화재 강국임을 알 수 있다. 이탈리아가 문화재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전통과 현재의 조화, 균형을 추구하는 문화적 특징이 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이탈리아는 국가 차원에서 문화재 보존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일환으로 문화유산보호의무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으며, 유네스코와 손잡고 문화재 보존 및 복구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다.
- 다만 문화재 보존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만을 가지고는 무리가 있다. 유럽의 여러 사례를 살펴보면 문화유산을 보존하는데 막대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후원이 절실히 필요해 보인다. 이탈리아에서는 실제로 이른바 명품이라고 불리는 대기업에서는 매년 문화재 복원과 보존을 위해 많은 비용을 투자한다고 한다. 한 예로 이탈리아의 명품 브랜드 Fendi(펜디)는 로마의 유명 관광명소인 트레비분수 2012년 개보수 당시 많은 돈을 기부했다. 이러한 선진 의식은 시민 모두가 배울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었다. 우리시의 경우에도 이천5층석탑이 여전히 환수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시에서만 노력만이 아니라 민관협력은 물론 관내 대기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 또 다른 시사점은 출장 지역중에 티볼리의 경우를 보면, 티볼리의 주요 산업은 관광업이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관광객들에게 2유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 세외수입을 통하여 다시 도시의 문화재 유지보수비용으로 재투자가 된다. 이러한 부분은 관광

자원 및 지역인프라 개발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충분히 논의해 볼 가치가 있어 보인다.

- 프랑스는 유럽에서 이탈리아에 이어 가장 많은 수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다. 프랑스 사회에서 문화재 개념의 관한 논의는 170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 그 역사가 매우 깊다. 근대 서구 사회에서 국가 차원의 문화재 관련 제도를 제일 먼저 수립한 나라는 프랑스였으며 문화재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공공성이었다. 따라서 국가의 보호 대상이 되는 문화재의 범주를 설정하고 공공 부문에서 문화재 보존 정책을 수행해야 하는 이유와 당위성을 규정하는 것은 프랑스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프랑스에서 문화재는 기념비성, 역사적 의미, 미적 가치, 그리고 공동의 기억 등의 가치들을 근거로 설정되었으며 그 범주는 순차적으로 확장되었다. 문화재 보호에 관한 사회적 합의와 법제화된 제도의 시행 경험을 축적한 프랑스 정부는 유네스코와의 협력을 통해 세계유산 제도가 시행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 이렇듯 유럽의 문화재 관련 정책은 오랜 역사를 통해 정치권에서부터 문화재 보존과 관리에 많은 지원이 있었기에 지금의 문화유산들이 존재했고, 시민 한명 한명의 인식과 대기업들의 관심과 후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다.
- 불편하고 아쉬운점도 있었다. 이탈리아의 경우 관광객이 워낙 많다 보니 거리에 많은 쓰레기통과 담배피는 구역의 지정이 없어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선진국에 맞지 않는 행정으로 보여졌다. 또한 건축물 증·개축에 어려움이 많은 이탈리아는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시설이 다소 미흡하였다. 하지만 어찌 생각해보면 서로의 배려와 독립적인 생활이 이러한 문화를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우리는 개인이 조금만 불편해도 그걸 편리한 쪽으로 만들고 자연을 해치고, 보존하려는 생각을 안했을 듯하다. 울퉁불퉁한 보도블럭도 아무렇지 않게 다니는 차와 전동차들이 많은데 그런 길 조차도 그대로 보존하려는 그들의 문화를 지켜내려는 하나의 방식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출장국가의 사례를 보면 보존하여 관광자원이 되고 그로인해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듯이 무조건 새로 만들고 가꾸려고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란 것을 깨달았다.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이 어찌면 변화해가는 사회속에서 우리가 찾아야하는 그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문화를 만들고, 그 문화를 보존하여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우리가 해야할 일이며 우리가 추구하는 문화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유럽의 앞선 문화 의식과 환경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기간이었다.

□ 그 외 벤치마킹 분야..... 보고자 : 김하식, 박명서, 송옥란 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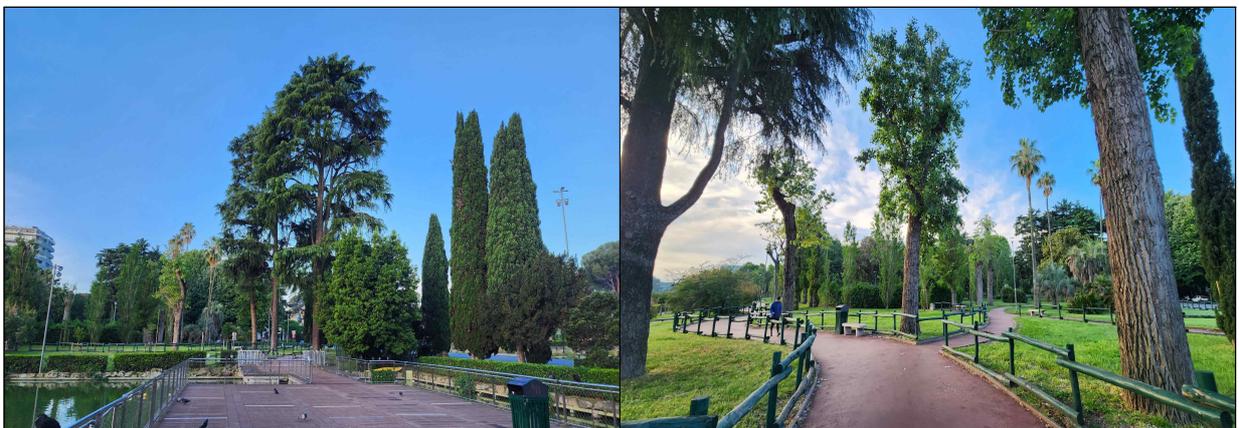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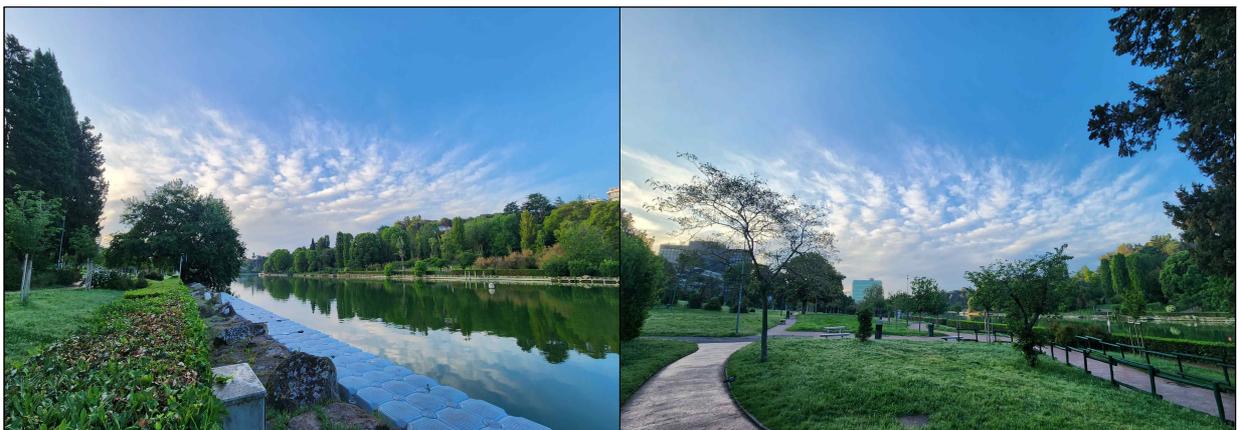
● 이탈리아 관광지 외에 주거지역

→ 관광지 외에 주거공간은 무분별한 개발이 아닌 계획적으로 구성된 도시설계를 엿 볼수 있으며 이는 이탈리아 출장 전지역에서 확인 할 수 있었다.



● 이탈리아 주거지역에 흔하게 찾아 볼 수 있는 산책로 및 공원

→ 이탈리아는 고대부터 정원·조경에 대한 조예가 깊다. 주거공간 곳곳마다 잘 가꾸어진 산책로와 인공호수를 포함한 공원을 자주 마주칠 수 있었다. 공원을 살펴보면 단순한 공원을 위한 공원이 아닌 지역 주민의 볼거리 제공과 쉼터를 제공하는 공원의 역할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었다.



- 이탈리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지역 투어 차량
→ 우리나라에선 보통 투어 버스(대형)로 운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탈리아에서는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소형 투어차량이 존재한다. 혼자 혹은 커플이 여행하는 경우 활용도가 매우 좋아보이며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 이탈리아 주거지역 한복판에 있는 공동묘지
→ 주거지역 한복판에서 공동묘지를 볼 수 있었다. 서양권에서는 공동묘지에 관한 개념이 기피지역이 아닌 추모공원의 느낌을 주는 문화를 엿볼수 있었다.



- 스위스 곳곳에 있는 조형물과 관광 안내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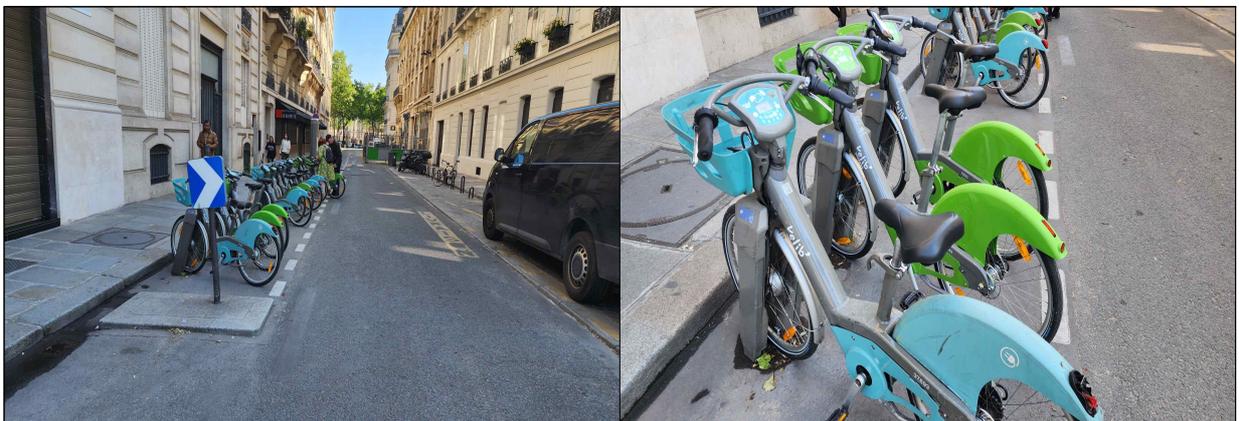
● 스위스 길가의 가로수 관리

→ 시야 확보와 미관을 위해 주기적인 전지를 통해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는 가로수를 볼 수 있다.



● 프랑스의 전동자전거 전용주차존

→ 프랑스는 전동자전거 전용주차존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다. 우리시도 작년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방치된 전동 킥보드 등을 볼 수 있다. 또한 작년 시정질의를 통해 현황 조사 및 지적을 하였으나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프랑스의 관리 사례를 보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프랑스 전동자전거 전용주차존



이천시의 전동자전거 주차 실태 및 주차전용존

- 프랑스의 공원

→ 드넓은 프랑스의 공원을 살펴보면 시민들이 편하게 잔디밭에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과 나무그늘 공간을 분리해 놓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 프랑스의 소형 길거리 청소 차량

→ 소형 청소차량이 주기적으로 프랑스의 거리를 청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 프랑스 마트의 한국산 쌀 판매 현황

→ 프랑스 대형마트 확인 결과 다수의 한국산 쌀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천쌀은 확인이 어려웠다. 쌀의 고장인 이천에서 생산된 쌀이 없다는 점이 아쉬운 점으로 남았다. 유통 관계의 어려움이 있었는지 아니면 방문지역의 마트에만 없었는지 농협이천시지부와의 간담회를 통해 이천쌀의 수출관계를 파악해 볼 필요성을 느꼈다.



- 프랑스의 특이한 출입문 구조

→ 프랑스의 어느 센터 출입문은 문 중앙쪽에 손잡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래 사진과 같이 양 끝쪽에 손잡이를 두고 가운데는 기둥을 세워서 들어가고 나가는 양쪽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는 상황을 최소화 시킨 것을 볼 수 있었다. 아울러 유럽 여러곳에서 꼭 이런 형태의 문이 아니더라도 건물의 출구와 입구를 명확히 구분해 놓은 곳을 자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유럽에서 건물 출입을 편의성을 위해 오랜 시간동안 습관화가 되어왔고, 단순히 출입문 하나에서도 시민의 편의성을 생각하는 점을 눈여겨 볼 수 있었다. 이천시에서도 충분히 고려해볼만 하다고 생각되며, 추후 관련 부서와 미팅을 통해 개선점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겠다.



□ 직원 의정지원 후기 보고자 : 이민수, 이보철, 이재태, 윤진희, 경종진

- 친구 또는 가족과 떠나는 여행이 기대 반 설렘 반이라면, 직장에서 떠나는 연수는 걱정 반 염려 반인 것이 인지상정일 것이다. 하지만, 부담이 큰 만큼 연수는 학습의 좋은 기회이자 선진제도를 배울 수 있는 업무의 연장이기도 하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2023년 이천시의회에서 추진한 유럽 3개국 연수는 이탈리아 티볼리의회와 피렌체의회 등 유럽 의회의 선진 의정을 탐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 이번 연수에 동행한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연수단이 현지에서 차질 없이 일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의정지원에 최선을 다했다. 이천시의회를 알릴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이탈리아 피렌체의회 등 방문기관에 배포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홍보기록물 촬영에도 많은 공은 들였다.
- 특히, 국내와 다른 기후변화로 인해 감기 등 건강에 유의할 수 있도록 사전에 상비약 등을 꼼꼼히 준비하여 연수단이 건강하게 일정을 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관방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현지 통역사가 연수단에 정확히 합류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 이번 의정지원은 연수단이 출발에서 도착까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했지만, 개선할 부분은 더 보완하여 앞으로 더 알찬 의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